

조선산업



노르웨이 선급, 메탄올 연료의 비현실성 사실상 인정

산업분석

2025. 12. 08

treaboat@treaboat.com

산업 전망

노르웨이 선급, 메탄올 연료의 비경제성 인정

노르웨이 선급(DNV)은 최근 메탄올 선박 연료의 사용에 관한 기술적 준비 사항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면서도 메탄올 연료 사용을 위한 경제성은 매우 빈약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메탄올 연료 공급의 안정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못해 메탄올 연료는 매우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선급은 2030년 메탄올 선박 연료 수요량은 연간 15백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메탄올 연료 공급량은 2.2백만톤 수준에 불과하며 싱가포르 항구에서 1,600만톤, 로테르담 항구에서는 11,800만톤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메탄올 연료 가격은 2022년 3,500달러/톤에서 올해는 2,500달러/톤 수준으로 약 1천달러 수준이 내려왔다. 하지만 2050년이 되어도 메탄올 연료 가격은 1,200-2,050달러/톤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톤 당 5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벙커유와 비교해서는 경제성이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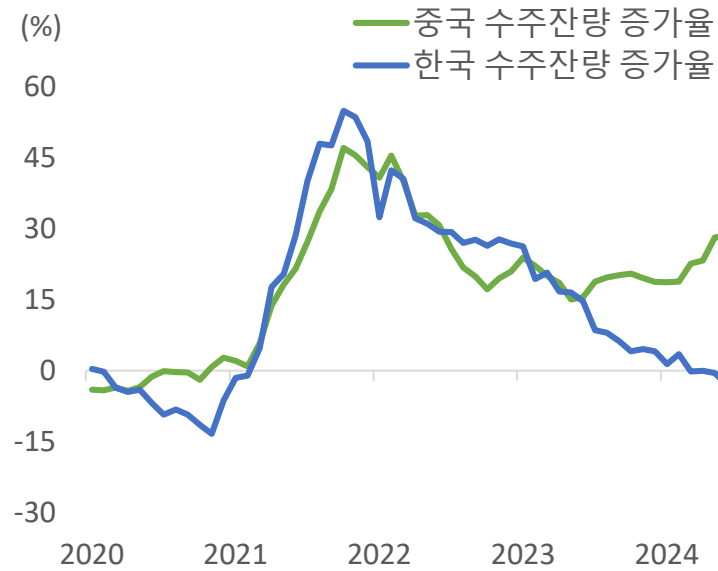
메탄올/암모니아 연료의 비경제성

선박 운항 비용의 50-70%는 연료비용이다. 선주사들은 연료비용을 낮추는데 골몰하고 있으며 낮은 연료비는 곧 운임을 내릴 수 있는 해운업 경쟁의 핵심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벙커유보다 5배 가량 더 비싼 메탄올/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선주사 입장에서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정세는 더 이상 친환경/탄소중립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 메탄올/암모니아 연료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선박 수요 불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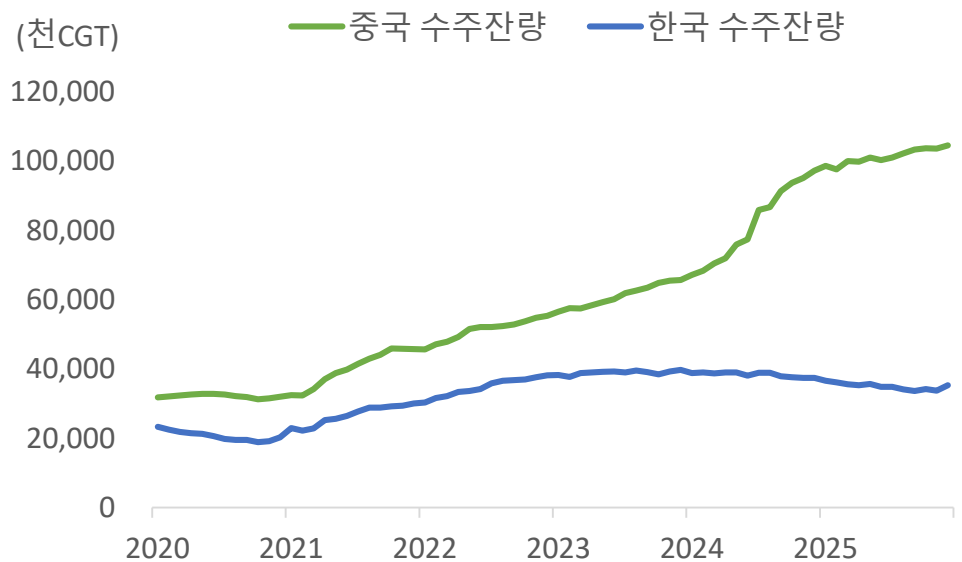
2050년이 되어도 벙커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기술 사양은 선박 추진 기술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더 낮은 선가와 더 낮은 운항 비용을 추구하는 것이 해운업의 핵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친환경 선박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불투명한 신기루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1] 중국과 한국 선박 수주잔량 증가율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그림2] 중국과 한국 선박 수주잔량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